

『東醫壽世保元』에 나타난 陰陽觀

劉 準 相*

I. 緒 論

『東醫壽世保元』은 1894년 東武 李濟馬가 발표한 책으로, 李濟馬의 독특한 의학체계인 四象醫學을 力說한 책이다.

李濟馬는 그의 著書 『東醫壽世保元』을 통해 기존 의학에서 밝히지 못했던 인체의 기능과 구조적인 차이를 밝혀서 太少陰陽人으로 구분을 하였다. 여기서 그가 太少陰陽人을 援用한 것은 다음아닌 「周易·繫辭傳」에 “易有太極，是生兩儀，兩儀生四象，四象生八卦”라고 한 부분이다.

太少陰陽의 전단계를 『周易』에서는 陰陽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陰陽이란 韓醫學에서 八綱의 總綱領으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四象醫學에서는 陰陽(兩儀)를 太極에서 四象으로 넘어가는 中間者로 설명을 하고, 오히려 四象의 屬性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陰陽의 屬性은 많은 부분을 포괄하고 있고, 『東醫壽世保元』도 醫學經驗이 五六千年 지난 후에 이루어진 著作이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陰陽

이 충분히 개입되어 있다는 것은 否認할 수 없는 사실이다.¹⁾

따라서 본 論文에서는 『東醫壽世保元』에 나타난 陰陽은 어떤 식으로 표현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本 論

1. 왜 『東醫壽世保元』에서 陰陽을 살펴야 하는가?

陰陽은 고래로부터의 소박한 우주관이었고, 이를 한의학에 접목시켜서 五行과 더불어 지금까지 陰陽 五行說로 살아 남아 있다. 유일하게 동양문화중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용되고 있는 것은 한의학분야일 것이다. 그만큼 한의학에서 陰陽이란 존립근거가 될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한의학자들은 어지간히 陰陽을 논술하고 있으며, 또는 陰陽觀이 내포된 思想을 가지고

* 상지대학교 한의학과 대학원

1. 李濟馬: 『東醫壽世保元·醫源論』 “余生於醫藥經驗五六千載後 因前人之述 偶得四象人臟腑性理 著得一書 名曰壽世保元”.

있다. 『東醫壽世保元』도 李濟馬가 儒學을 바탕으로 四象哲學을 만든 기초위에 四象醫學을 창안한 것이므로 분명 五六千년의 醫學經驗이 들어가 있을 것이고, 그것은 곧 陰陽이 개입되어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2. 陰陽과 四象의 관계는?

陰과 陽은 중국사상의 근본적인 전제를 표현하는데 사용되는 기초적 용어들로서 이것은 모든 효과들의 兩極性의 관념을 나타낸다.

『詩經』의 몇몇 시들이 陰과 陽이라는 단어들의 최초의 문학적 언급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이 한 쌍의 개념의 철학적이고 사색적인 측면들을 보여주는 최초의 문구로는 「周易·繫辭傳」의 “一陰一陽之謂道”라는 구절을 흔히 인용한다. 前漢 초 또는 그 이후에 편찬된 것으로 알려진 『禮記』에 와서는 마침내 陰과 陽이라는 글자들이 하나의 전문적 복합어 즉 陰陽으로 결합되어 자주 사용되고 있다.²⁾

陰陽觀을 채택한 한의사들은 그의 저서에 정통적인 이론적 근거로서 표현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黃帝內經』을 위시한 한의학서적들은 陰陽이라는 범주(category)를 벗어나지 않게 된 것이다.

陰陽은 기본적으로 事物의 內·外的 表現方式을 설명하는 기본방식이 되었으며, 臨床에서조차 모든 健康과 疾病을 파악하는 기본 觀이 된 것이다.

醫學方面에서 陰陽은 八綱의 總綱領으로서 診斷, 治療, 豫候 判定의 으뜸 德目이 된 것이다.

옛날, 易을 만드신 聖人은, 천지만물이 지극히

多種多樣, 뒤엎히고 혼잡하여 통일이 없음을 보이고, 어떤 다른 物(즉, 象)을 천지만물의 모습·모양에 비유하고, 천지만물의 당연히 그러해야 할 모습을 상징화하여 사람에게 나타내 보였다. 이와 같이 비유하고 상징화하므로, 이것을 象이라 하는 것이다.³⁾

결국 陰陽이나 四象은 그 자체로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事物에서 상징화하고 추상화한 것이다.

陰陽과 四象의 관계는 다만 周易의 兩儀生四象이라는 분명한 언급이외에 의학에서 둘의 관계를 論證하고 발전시킨 부분은 없다. 證治醫學에서는 陰陽을, 四象醫學에서는 四象이라는 分類를 확고히 굳혀 나간 것이다.

3. 陰陽은 四象醫學에서 어떠한 개념으로 나타나는가?

1) 陰陽과 肺脾肝腎의 관계

『東醫壽世保元』에서는 陰陽의 呼吸, 出納에 의해서 肺脾肝腎의 直升, 橫行, 放降, 陷降의 힘과 事務, 交遇, 黨與, 居處가 정해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肺에서는 呼하는 것으로 肺가 呼한다는 것은 肺속에서 陽이 噴出되려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呼하면 반드시 거기에 대응되는 세력이 있는 理致이니 肺속에 陽이 충실되어 있는 상태인 直升之衰力으로 事務가 속임수를 하려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폐의 기능을 완성시키는 상태라고 표현한 것이다.⁴⁾

2. 만프레드 포커트, 『중국전통문화와 과학』, 음양개념의 분석, 創作社, 1986, p.183.

3. 「周易·繫辭傳上」聖人有以見天下之 而擬諸其形容 象其物宜 是故謂之象.

4. 金大性, 洪淳用: 東醫壽世保元 性命論註解에 관한 研究, 四象醫學會誌, 1991, 3:1 p.17.

脾는 納하는 臟器로서 陰陽을 造化시켜서 陽을 歸納하는 作用을 하는 것인데 納의 작용이 이루어질 때는 반드시 陽盛陰虛하는 理致가 생기게 되므로 陰으로서 陽을 포위할 때 陽이 그 속에서 充溢하게 되면서 생기는 陽의 半撥力을 牽制하는 것으로 上向性이 있는 陽을 橫行토록 强要할 때 怒力이 일어난다 하니 이러한 橫行之怒力으로 交遇때에 생기는 陽의 過亢을 未然에 防止하게 하려는 것이다.⁵⁾

肝은 吸하는 것인데 天下 萬物이 吸하면 반드시 致來하는 理致가 있으니 肝이 吸하는 것은 反生하기 위한 準備作用을 의미하는 것으로 즉 下降하는 作用인 吸入하는 힘에서 解放되므로 반대로 上向하는 힘인 斥力으로서 黨與를 돕는다고 하였다.⁶⁾

腎은 내보내는 作用을 하는 것으로 出하면 그 內容이 반드시 竭盡하게 되므로 그 陷降之力을 이용한 樂力으로서 그 居處가 竭盡하지 않도록 對備해야 하는 것이라 하였다.⁷⁾

2) 東武公의 本體論的 認識方法

宋⁸⁾은 『東醫寶鑑』과 『東醫壽世保元』을 비교연구하면서 『東醫寶鑑』에서는 生理的 辨證을 설명하기 위하여 “氣裏形表”의 精神인 形象辨證의 方法을 導入하여 「身形篇」을 설명하고 있고, 『東醫寶鑑』雜病門에서도 病證 說明에 “形證病證”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어 醫學의 모든 生理나 病理現象을 形象辨證 方法으로 說明하려는 意圖를 짐작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어서 太極, 兩儀, 四象의 분류방식을 사용하여 體質證과 體質病證을 설명하였는데, 心을 太極에 代入하고 人趨心慾과 人稟臟理를 兩儀心身に 代入해서 四象人의 臟腑性理를 완성시키고 外形인 體形氣像, 容貌詞氣, 性質, 才幹을 四象에 代入하여 體質證을 성립하였다.⁹⁾

또한 體質證과 體質病證의 관계에서 體質證의 臟腑性理를 太極으로 內傷, 外感, 七情의 病理要因을 兩儀로 보고 이들을 함께 모아 “氣裏”로 요약할 수 있고 體質病證의 현상들을 “形表”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하였다.¹⁰⁾

	氣理		形表
內經	未得臟理		若得外形
許浚	精氣神	五臟六腑	頭面手足 筋脈骨肉
東武	心	人趨心慾 人稟臟理	體形氣像 容貌詞氣 才幹 性質
	太極	兩儀	四象

氣理		形表
太極	兩儀	四象
體質證 〈人稟臟理, 人趨心慾〉	病因 〈外感·內 傷·七情〉	形證病證 〈太陽陽明之發熱 形證一也而…〉 〈太陰少陰之自利 形證一也而…〉

즉 陰陽이란 四象醫學에서는 心身 즉 人趨心慾과 人稟臟理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으며, 또는 病因을

5. 金大性, 洪淳用: 上揭書 p. 18.

6. 金大性, 洪淳用: 上揭書 p. 18.

7. 金大性, 洪淳用: 上揭書, p. 18.

8. 宋一炳: 四象人 體質證과 體質病證의 成立過程에 對한 研究, 四象醫學會誌, 1994, 6: 1, p. 71.

9. 宋一炳: 上揭書, p. 72.

10. 宋一炳: 上揭書, p. 73.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3) 兩儀는 知行, 生成을 意味

四象醫學에서 말하는 四象의 의미는 四物類의 要約精神에 立脚해서 서로 다른 네가지 유형의 物象을 의미하는 것으로 『周易』에서 말하는 陰陽의 偏差性을 나타내는 符號로서의 四象과는 차이가 있다. 즉, 『周易』에서 말하는 “易有太極 是生兩儀 兩儀生四象 四象生八卦 八卦定吉凶 吉凶生大業(『周易·繫辭傳』)”라고 하였듯이 太極에서 兩儀·四象·八卦까지의 세 단계의 변화과정을 거쳐 物象인 卦가 形成된다고 보고 四象보다는 八卦의 의미를 더 강조하고 있지만 四象醫學에서는 “天生萬物 有物有則(『四象醫學草本卷』)”에서 나타나듯 ‘物’과 ‘則’의 대비되는 개념으로 四象의 分化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太極과 兩儀는 ‘則’에 해당되고, 四象은 ‘物’에 해당되는 개념으로서 四象을 더 이상 分化하지 않는 實體의 概念의 物象으로 보고 모든 事物의 構成的 要素의 基本單位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¹¹⁾

이어서 太極을 物과 則 또는 形과 成이 一而不二로 혼용된 상태로 설명하였고, 兩儀를 知와 行, 또는 生과 成으로 설명하였으며, 四象을 舒卷進退, 또는 決覺動止하는 變靜動化(動靜變化)의 관계로 파악하여 설명하였던 것이다.¹²⁾

4) 『東醫壽世保元』에 나타난 陰陽의 屬性

四象醫學에서 陰陽은 氣의 升降緩速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즉 內經醫學에서는 陰陽의 盛衰를 重視하지만 四象醫學에서는 陰陽은 上下升降의 意味를 重視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東醫壽世保元』에 보이는 陰陽의 屬性에 관한 부분을 정리한 것이다.

① 陰陽偏差에 따른 事心身物의 四象類型的 要約精神이 人體에 適用되면서 上部, 中上部, 中下部, 下部 등의 四焦를 형성하였다.

② 水穀之氣는 四腑에서 陰陽의 偏差에 따라 上下升降의 原理로 淸濁分別된다. 즉 胃에서 熱氣가 생산되고 小腸에서 冷氣가 생산된 후 熱氣의 淸者는 胃脘으로 上升하여 溫氣가 되고, 冷氣의 質重한 것은 大腸으로 下降하여 寒氣를 形成하게 된다.¹³⁾

③ 水穀의 四氣가 陰陽의 偏差에 따라 上下 네 단계로 분류되어 前四海를 形成하게 되고 前四海가 다시 四黨을 形成한다.

④ 少陰人의 表病證에는 升陽益氣를, 裏病證에는 裏陰降氣, 少陽人의 表病證에는 表陰降氣, 裏病證에는 裏陽升氣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⑤ 哀怒喜樂之氣의 성질은 哀氣直升, 怒氣橫升, 喜氣放降, 樂氣陷降하며, 哀怒之氣는 陽으로서 上升하며, 喜樂之氣는 陰으로서 下降하게 된다. 哀怒之氣

陽	上焦	肺	胃脘	溫氣	耳	頤	事務	哀力	海(神)	津海(意)	頭(頭腦)	皮毛
	中上焦	脾	胃	熱氣	目	臆	交遇	怒力	膜海(氣)	膏海(慮)	肩(背頤)	筋
陰	中下焦	肝	小腸	冷氣	鼻	臍	薰與	喜力	血海(血)	油海(操)	腰(腰脊)	肉
	下焦	腎	大腸	寒氣	口	腹	居處	樂力	精海(精)	液海(志)	腎(膀胱)	骨

11. 송일병, 고병희, 김경요, 김달래, 김종완, 김진성 외 10인, 四象醫學, 集文堂, 1997, p. 59.
 12. 송일병, 고병희, 김경요, 김달래, 김종완, 김진성 외 10인, 四象醫學, 集文堂, 1997, p. 60.
 13. 水穀 自胃脘而入于胃 自胃而入于小腸 自小腸而入于大腸 自大腸而出于肛門者 水穀都數 停蓄於胃而 薰蒸爲熱氣 消導於小腸而平淡爲涼氣 熱氣之淸者 上升於胃脘而爲溫氣 涼氣之質重者 下降於大腸而爲寒氣.

는 順動하면 生理的 上升을 하며, 喜樂之氣는 順動하면 生理的 下降을 한다. 반면 哀怒之氣가 逆動하면 異常的 上升으로 下焦가 傷하게 되며, 喜樂之氣가 逆動하면 異常的 下降을 하며 上焦를 傷하게 된다.¹⁴⁾

⑥ 肺脾肝腎之氣는 肺氣는 直而伸하며 脾氣는 栗而包하며 肝氣는 寬而緩하며 腎氣는 溫而縮한다.¹⁵⁾

⑦ 四腑之力은 上升(胃脘), 停縮(胃), 消導(小腸), 下降(大腸) 한다.

⑤⑥⑦ 은 人體活動에 의하여 나타나는 氣는 모두 넷으로 분류되며 이러한 氣의 作用은 그 氣의 特性에 따라 陰陽偏差的 升降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上下의 偏差, 內外的 偏差에 따라서 作用部位와 升降의 形態가 정해진다.

⑧ 三陰三陽은 辨證의 차이이며, 이치는 腹背表裏에 있으며, 經絡의 變化를 궁구할 필요는 없다.¹⁶⁾

5) 『明善錄』에 나타난 陰陽

『明善錄』은 芸菴 韓錫地(1709-1790)가 지은 책으로 1940년 그의 향리인 함흥에서 『格致藁』와 함께 간행되면서 세인의 관심을 끌었고, 洪¹⁷⁾은 『四象醫學原論』말미에서 “東武가 『明善錄』을 평하기를 ‘문체가 너무 아름다워 뜻을 소홀히 하기 쉽다. 그

러나 芸菴은 과연 조선의 제일인자’라고 하였다”라고 하였으며, 筆者¹⁸⁾는 『明善錄』과 『東醫壽世保元』의 몇몇 語句를 비교하면서 연관성이 있음을 밝혔다. 따라서 芸菴의 陰陽에 대한 論評을 들어보는 것도 四象醫學에서 陰陽을 파악하는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려된다.

문기를 “그대는 음과 양으로써 사람의 마음과 도를 지킬려는 마음에 대하여 말하니, 좋은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람의 마음과 도를 지키려는 마음에서 어느 것이 양이 되고 어느 것이 음이 되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대답하여 말하기를 “사람의 마음과 도를 지키려는 마음에서 가볍고 소중함, 앞에 할 것과 뒤에 할 것은 일찍이 각각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지 않았다.

사람의 마음이 도를 지키려는 마음과 합쳐지면 사람의 마음이 앞이고 중요하고, 도를 지키려는

마음이 사람의 마음과 합쳐지면 도를 지키려는 마음이 앞이고 소중하다. 그러나 근본은 한 몸이다.

서로 겹과 속이 되고, 서로 처음과 끝이 된다. 그러므로 ‘서로 짝이 되고 서로 돕는다.’라고 말하니, 귀중한 것은 오직 하나로 모아 그 중정을 진실로 잡는 것이고, 마땅히 송인처럼 나누고 끊고·칭찬하고·나무라지는 말아야 한다.”¹⁹⁾

14. 哀氣 直升 怒氣 橫升 喜氣 放降 樂氣 陷降

哀怒之氣 上升 喜樂之氣 下降

上升之氣 過多則 下焦傷 下降之氣 過多則 上焦傷

哀怒之氣 順動則 發越而上騰 喜樂之氣 順動則 緩安而下降

哀怒之氣 陽也 順動則 順而上升 喜樂之氣 陰也 順動則 順而下降

哀怒之氣 逆動則 暴發而 並於上也 喜樂之氣 逆動則 浪發而 並於下也

上升之氣 逆動而 並於上則 肝腎傷 下降之氣 逆動而 並於下則 脾肺傷

15. 肺氣 直而伸 脾氣 栗而包 肝氣 寬而緩 腎氣 溫而蓄(2-11).

16. 三陰三陽者 辨證之同異也 其理 在於腹背表裏而 不必究其經絡之變也(5-4).

17. 李濟馬 原著, 洪淳用·李乙浩 譯述, 『四象醫學原論』, 杏林出版, 1992, p. 396.

18. 劉準相, 金達來: 『東醫壽世保元』과 『明善錄』에 나타난 주요 語句에 관한 比較 研究, 1997.

19. 問子以陰陽으로 對言人心道心하니 可謂善喻 | 然

但未知人心道心이 何者 | 爲陽이며 何者 | 爲陰與요

曰人心道心之輕重先後 | 未嘗各在一偏矣라

고 하였으니 결국 陰陽理氣性情이 모두 不可分으로 하나라는 관점을 천명한 것이다.

4. 證治醫學과 四象醫學에서 陰陽의 概念上 차이가 있는가?

宋²⁰⁾은 既存의 證治醫學이 黃老之學에 바탕을 둔 『黃帝內經』에 그 原理의 原型을 두어, 宇宙自然의 秩序와 運行原理는 人體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視覺을 바탕으로 陰陽五行的 循環原理에 立脚하여 형성된 것이라면, 四象醫學은 儒學的 思考에서 出發함으로 인하여 宇宙의 秩序 보다는 人間社會의 關係 즉 人間의 倫理道德에 基礎한 哲學을 背景으로 하고 四象類型的인 氣의 升降 原理에 입각하여 형성된 醫學이라고 하였다.

證治醫學이란 黃老之學을 바탕으로 戰國時代에서 漢代에 걸쳐 여러 사람에 의해 著述된 『黃帝內經』을 중심으로 우주운동의 무한성과 규율성을 기본정신으로 한다. 따라서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은 天地와 어우러진 인간으로 보게 되었다. 그리하여 인체의 모든 生理, 病理變化를 자연환경과 비유하여 설명하기도 하였고, 인체의 氣血循環도 天地의 運行과 비교하였다.

그리하여 陰陽이라는 自然觀, 宇宙觀은 곧 人體의 生理觀, 病理觀으로 適用되어서 설명되었다.

즉, 여름과 겨울이라는 陰陽屬性은 人體에서 寒, 熱로 나타난다는 하나의 예를 보더라도 天地속에서 適應, 調和해 나가는 인간을 醫學的 對象으로 삼은

것이다.

그러나, 四象醫學에서 바라보는 人間은 이제 더 이상 자연, 우주에 얽매어 있는 微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초월해서 살아가는 활동적인 人間象, 人間關係論을 정립하였다.

「東醫壽世保元·性命論」에 “天機에 네가지 종류가 있으니 첫째 地方이요, 둘째 人倫이요, 셋째 世會요, 넷째 天時라 하였고, 人事에 네가지 종류가 있으니, 첫째 居處요, 둘째 黨與요, 셋째 交遇요, 넷째 事務이다.”²¹⁾라 하였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天機라는 宇宙觀을 설명하면서 地方, 人倫, 世會, 天時에서 人倫과 世會는 人間關係論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人事에 중점을 두어 居處, 黨與, 交遇, 事務를 설명하여 이를 강조하고 있다.

宋은 李濟馬의 本體論은 太極, 兩儀, 四象으로 명확하게 표현되었다고 하였다.

즉, 李濟馬는 本體論의 概念을 『周易』에서 借用하였지만 완전히 새로운 개념으로 탈바꿈시켜 놓았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그는 太極, 兩儀, 四象의 개념을 『周易』에서 그대로 도입했으나 여기서의 太極→兩儀→四象은 다시 四象→八卦→六十四卦로 가는 과정, 즉 本體에서 萬物로의 分化하는 象을 나타낸 것이라면, 李濟馬의 太極, 兩儀, 四象은 그 自體가 바로 本體的 地位를 占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독창적 견해가 있다. 그에게 있어서 太極, 兩儀, 四象은 단지 觀點의 分化이지, 그것이 萬物을 形成하는 形成原理의 分化는 아니라는 것이다.²²⁾

人心而合於道心則人心이 先而重也 | 요 道心而合於人心則道心이 先而重也 | 나 然而本一體也 | 라 相爲表裏하고 相爲始終 故로 曰相配而相濟라하니 貴在精一執中이요 不宜分載褒貶을 如宋人也 | 니라. ((明善錄·致知第四)).

20. 宋正楨: 四象醫學의 原理와 哲學的 背景에 對한 考察, 四象醫學會誌, 1992, 4: 1, p. 5.

21. 李濟馬: 「東醫壽世保元·性命論」, “天機有四, 一曰地方, 二曰人倫, 三曰世會, 四曰天時, 人事有四, 一曰居處, 二曰黨與, 三曰交遇, 四曰事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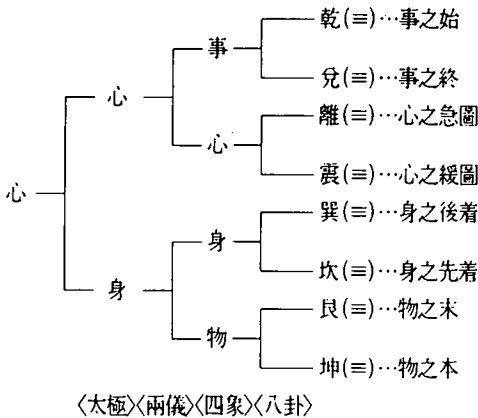
李濟馬는 太極을 一元的 本體 즉, 心으로 파악하고, 二元的 本體를 心身으로, 四元的 本體를 事心身物이라 했던 것이다.

다음 <표1>은 『格致藁』에서 「周易·繫辭傳」의 文句를 인용하여 자신의 本體論의 見解를 피력한 내용을 圖式化한 것이다.

易曰 易有太極 是生兩儀 兩儀生四象 四象生八卦
 八卦定吉凶 吉凶生大業
 太極心也 兩儀心身也 四象事心身物也
 八卦事有事之終始 物有物之本末 心有心之緩急 身有身之先後
 乾事之始也 兌事之終也 坤物之本也 艮物之末也
 離心之急圖也 震心之緩圖也 坎身之先着也 巽身之後着也

<格致藁·反省箴>

표 1



陰陽은 그 屬性上 分類를 해 나가다 보면, 끝도 없이 무궁무진하게 陰陽으로 兩分할 수 있는데, 陰陽을 借用한 韓醫學에서 말하는 陰陽觀은 결국 陰陽의 二分法的 分化自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方法論을 이용해서 좀더 세밀한 분류작용을 통해 이론 및 임상에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李濟馬의 四象醫學을 고찰하자면, 太極, 陰陽, 四象 중에서 그가 가장 중요한 논리적 근거로 삼은 것은 四象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陰陽에서 八卦로 넘어가는 四象을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삼아 四元構造的 原理를 더욱 확고히 한 것이다.

崔²³⁾는 李濟馬의 四象論은, 易理에서 八卦說 以下를 채택하지 않음으로써, 八卦 및 六十四卦에 이르는 數理的 易理에 대해서는 全的으로 관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東武公은 傳統易理에서 멀리 떠난 獨自의 立場을 취했다고 해석했다.

또한 東武는 太極, 陰陽, 四象의 周易用語를 그대로 受容하면서도 太極은 全人構造的 統一的 또는 總體的 포괄자로 보았고, 陰陽은 氣의 上升·下降의 개념으로 풀이하면서 四象의 陰陽論의 意味를 補強해 주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證治醫學에서의 陰陽이 診斷, 治療의 基礎가 되는 八綱의 總綱領으로서의 意味를 가진다면 四象醫學에서는 그 위치에 四象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요, 陰陽은 太極에서 四象으로 전개되는 中間者에 그친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四象人의 生理, 病證을 說明하는데 陰陽의 屬性이 內在되어 있는 것으로 사려된다.

즉 四象醫學에서 말하는 兩儀(陰陽)는 心身이라고 정의해서 太極心, 四象事心身物로 分化해 나가는 中間者로 說明을 하였고, 陰陽의 屬性들은 四象

22. 宋止模 : 上揭書, p. 8.

23. 崔炳一, 高炳熙, 宋一炳 : 李濟馬의 本體觀과 그 背景에 대한 研究, 四象醫學會誌, 1990 2 : 1, p. 36.

醫學의 각 方面에서 基本的으로 깔려 있다고 사려 된다.

Ⅲ. 結 論

陰陽은 韓醫學이 있는지 五六千年동안 韓醫學의 理論的 根據가 된 思惟體系이다. 그리하여 現在까지도 韓醫學에서는 이를 가장 基礎的인 것으로 認識하고 있다. 朝鮮後期 李濟馬의 出現은 이러한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李濟馬의 四象醫學에서는 더 이상 陰陽이 중요한 사유체계가 아니고, 四象이 중요한 論理的 根據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四象醫學이라고 해서 易에서 말하는 少陰, 太陰, 少陽, 太陽의 屬性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四象이란 이름만 採用해서 太少陰陽人이라 붙여놓고 거기에 李濟馬先生의 思想을 심어 놓은 것이다.

위에서 살펴 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四象醫學에서 陰陽을 살펴본 이유는 四象醫學의 出現이 朝鮮에서 東醫寶鑑까지의 총정리된 醫學에 四象哲學을 加味해 만들어졌기에 陰陽觀이 들어 있다는 蓋然性이 있기 때문이다.

2) 陰陽과 四象의 관계는 「周易·繫辭傳」의 '兩儀生四象'에 관한 부분인데, 여기서 말하는 四象과 四象醫學의 四象은 엄밀하게 말한다면 관련이 없고 다만 명칭만 借用한 것이다.

3) 四象醫學에서 陰陽을 이용해 설명한 부분은 陰陽과 肺脾肝腎의 關係에서 氣의 呼吸出納과, 本體論的 說明에서 陰陽에 해당되는 것은 心身이라는 점, 즉 人趨心慾, 人稟臟理에 해당되며, 혹은 知行과 生成을 意味한다고 보았다.

4) 證治醫學에서 陰陽은 診斷 및 治療의 總綱領

이 되지만, 四象醫學에서는 太極心에서 四象事心身物로 넘어가는 中間者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기본적으로는 陰陽屬性이 깔려 있을 뿐이다.

5) 四象醫學에서 陰陽은 氣의 升降緩速을 나타내며 陰陽的 偏差에 따라 四焦를 형성하고, 水穀之氣가 溫熱冷寒氣로 바뀌며 四黨을 형성하였다. 또한 哀怒喜樂之氣, 肺脾肝腎之氣의 上下升降緩速 運動形態도 陰陽의 屬性에 따른 것이다. 이것은 四象人의 表裏病證 및 治法에도 적용되었다.

6) 요약하면 陰陽은 四象과 마찬가지로 可視的이지 않은 抽象的 概念으로서 四象醫學에는 이미 陰陽이 포괄되어 있으며 陰陽이 대립적인 구도로 이루어져 있지 않으며 하나의 一體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參 考 文 獻

1. 金大性, 洪淳用: 東醫壽世保元 性命論註解에 관한 研究, 四象醫學會誌, 1991, 3:1, pp.17-18.
2. 만프레드 포커트: 중국전통문화와 과학, 創作社, 1986, p.186.
3. 朴一峰 譯著: 周易, 育文社, 1994, p.560.
4. 송일병, 고병희, 김경요, 김달래, 김종원, 김진성의 10인, 四象醫學, 集文堂, 1997, pp.59-60.
5. 宋一炳: 四象人 體質證과 體質病證의 成立過程에 對한 研究, 四象醫學會誌, 1994, 6:1, pp.71-73.
6. 宋正模: 四象醫學의 原理와 哲學의 背景에 對한 考察, 四象醫學會誌, 1992, 4:1, p.5-8.
7. 劉準相, 金達來: 東醫壽世保元과 明善錄에 나타난 主要 語句에 關한 比較研究, 1997.
8. 李濟馬原著, 洪淳用·李乙浩 譯述: 四象醫學原論 (原名 東醫壽世保元), 杏林出版, 1992.

9. 崔炳一, 高炳熙, 宋一炳: 李濟馬의 本體觀과 그 背景에 대한 研究, 四象醫學會誌, 1990, 2:1, p. 36.
10. 韓錫地: 明善錄, 景仁文化社, 1986.